정길용 전북조달청장, 도내 우수제품 업체 방문

14일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방안 모색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 사항을 안내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주식회사 엘앤디테크(대표 진재언)를 방문했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이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부담을 개선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추진('23.2.10.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이다.

주식회사 엘앤디테크는 교통정보전광판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지향각이 조절된 발광장치 특허 기술을 활용한 LED전광판'이 2021년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전라북도 군산시 등 3개 기관에서 시범사용 후 '성공' 판정을 받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획득해 2022년 제4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지향각이 조절된 발광장치 특허 기술을 활용한 LED전광판'은 상부로 방출되던 빛을 개발 LED 및 전용렌즈를 사용하여 아래 방향으로 반사시킴으로써 빛 공해를 감소시키고 전기에너지를 절감하는 특징이 있다.

정길용 전북조달청장은 "조달업체의 판로지원 방안과 조달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업체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구청, 2023 당면 현안업무 신속 추진 당부

완산구청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구 10개과 47개팀 팀장들과 머릴 맞댄 회의를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마련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13일 회의를 통해 각 팀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각 팀별 당면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또 엄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앞세우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강조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팀장은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조성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부안군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부안군이 14일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로부터 제휴카드 적립 기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부안군과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가 맺은 제휴 협약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 부안군청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보조금카드 사용 금액의 0.1 ~1%를 적립한 금액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해 62,764천원으로, 전년 49,427천원보다 27%가량 증가하였으며, 3월 중 군 재정으로 환원돼 지역 및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부안군과 함께 노력해 주시는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된 기금은 부안군 발전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우리쌀로 만든 떡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전북도-전북농협, 백설기데이 맞아 전북 광역브랜드 쌀 소비촉진 지원행사

전북도지사와 전북농협은 14일 백설기데이를 맞아 도내에서 생산된 신동진과 전북 광역브랜드 쌀 『십리향米』로 만든 '백설기 떡'을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농협은행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배부하며 우리 쌀 소비촉진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과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 직원 등 30여 명은 민원인과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전북 대표 품종인 신동진으로 빚은 백설기로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또 농협은행 전북영업부, 전북도교육청지점은 전북 명품 쌀인 '십리향米'로 빚은 백설기를 내방 고객 등에게 배부했다. 백설기 떡을 맛본 고객들로부터 향과 맛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55g 정도로 공깃밥 한 그릇 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깃밥 한 그릇 가격이 250원 정도로 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우리 농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최소 하루 두끼 이상은 우리 쌀로 드시길 권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백설기 떡이 '하얀 쌀로 빚은 티 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란 뜻을 지닌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아이들의 백일 및 첫돌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떡을 나누며 쌀 소비를 촉진하고, 초간단 건강식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쌀에 대한 가치를 전하고자 오늘의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김아람기자

부안군, 반계 유형원 선생 탄생 400주년 기념 기획전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조선 후기 우반동(愚磻洞)에 이주·정착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저서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집필한 실학의 비조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선생의 학문을 기리기 위한 기획전시 '반계 유형원과 실학'을 개최한다.

지난 한해는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이 태어난지 40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였다. 이번 기획전시는 그간의 부안군이 반계 선생의 학문을 기리기 위해 개최해온 학술성과를 일반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전시이다.

이번 반계 탄신 400주년 기념 〈반계 유형원과 실학〉기획전시는 반계 유형원의 삶, 반계 유형원과 부안사람들, '반계수록, 세상에 빛을 보다', '실학의 성립과 완성'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스태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무주군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스태프들이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성금모금을 위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로 응원했다. 유기하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고, 무주와 군민들에게 희망을 쌓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고향사랑 응원이 더 즐겁고 행복한 무주군 조성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무주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풍성한 영화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5일 동안 무주등나무 운동장 등 무주군 일대에서 열린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무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무주 지역민 문화향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읍 명당마을 김수일 · 김순조 부부 장학금 기탁

부안읍 명당마을 김수일·김순조 부부가 지난 14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수일·김순조 부부는 "부안군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장학사업이 해마다 확대하며 지원을 넓히고 있는데, 장학금을 기부하는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부안군 장학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해마다 소중한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일·김순조 부부는 지난 2015년 결혼 30주년을 맞아 장학금 3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8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완산소방서 ·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위한 협약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는 14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주시 다문화가족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심종선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노정엽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협약에 관련해 소방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택안전 위한 소방시설 지원, 소방안전 컨설팅 지원, 다문화가족 소방안전 체험, 소방안전캠프 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전도모, 소방안전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전주시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동충동,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사업 추진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문훈)는 2023년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1회씩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혈압, 혈당 등 기초검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복약지도, 계절성질환 예방교육 등의 주제로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 저소득층 사업지원 연계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김문훈 동장과 간호 담당자는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타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건강 프로그램은 경로당 인원이 적어 진행이 안되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나와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애향 가수 금청 홍보대사 위촉

남원시는 지역출신 가수 금청(본명 김성환)씨를 시 조례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을 확정하고 14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금청씨는 앞으로 3년간 남원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다.

금청(64)씨는 남원시 송동면이 고향으로, 1997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온 CEO이자 2021년 7월 가수로 데뷔해 남원의 축제와 행사에 출연하며 남원 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금청씨는 2021년 12월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한 남원시 2번째 회원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해 나눔과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안전공사, 남부 도서지역 가뭄 위기 극복 동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계속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지역주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참여했다.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은 14일, 경남 통영 욕지도를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생수 11,100병(2L)을 직접 전달하고 도서 지역 전기안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이날 공사 직원들은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지역 내 관정(管井)시설(14개소)을 집중 점검하고 주택 25세대에 대한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완도·통영 등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인 6월 전까지 지역주민의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조아록 기자

금산면 주민자치위, 원평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영숙)는 지난달 24일 원평시장 내 개인 소유 부지를 정비하여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매주 장날(매월 4, 9일)을 무지개 마켓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 중 하나인 원평시장 활성화 사업은 원평 장날 시장 내 어울림 마당에서 방문객을 위한 음료 나눔 부스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시장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현재 길거리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노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날에는 공용 판매공간인 무지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정렬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